

함평군, '빛그린국가산단' 반도체·AI 유치 총력



토지 매입 지원·조세 감면 혜택 등 파격적 인센티브 RE100 기반 산단 조성... 미래 산업 중심 도약 예고

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함평군이 빛그린 국가산단을 축으로 반도체·AI 기업 유치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빛그린국가산단을 반도체와 제조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체계 구축, 미래차·AI·반도체 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빛그린국가산단은 함평군 월야면과 광

주 광산구 일원에 조성된 국가산단으로, 전체 약 400만㎡ 규모다. 이 중 함평 지역이 54.7%인 220만㎡를 차지해 대규모 산업 확장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구조를 갖췄다.

현재 금호타이어 등 주요 기업이 입주해 공사를 진행 중이며, 군은 이를 기반으로 RE100 시범 산단 지정과 산업유치 추가 확보를 통해 330만5785.12㎡(100만평) 규모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 재생에너지 활용이 가능하고 광역 상수망과 연계한 공업용수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광역 상수 계통과 지역 수자원을 연계한 공업용수 공급 여건도 갖추고 있어 첨단 제조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교통 접근성도 강점이다. 광주송정역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해 KTX 이용이 편리하며 무안국제공항·서해안고속도로·목포신항 등 광역 교통망과도 연결된다. 광주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정주 여건과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인력 수급 역시 한국에너지공대와 전남광주권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해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군은 연

구개발 기반과 연계한 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관련 특별법을 활용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확충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시 부지 매입비 지원과 세제 감면을 추진하고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산업 육성기금으로 적립해 재투자하는 구조도 마련했다.

이남호 함평군수는 "빛그린국가산단은 입지와 인프라, 재생에너지 여건을 모두 갖춘 첨단산업 최적지다"며 "행성 역량을 집중해 RE100 기반 반도체·AI 제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취월군 기자 6263739@gwangnam.co.kr

장성 백양사·백암산 명승 지정 확대

구역 8.4배 ↑...역사문화 통합 보존·관리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장성군이 천년 고찰 백양사와 백암산 일대가 명승으로 확대 지정됐다고 전했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명승 '장성 백양사 백학봉'의 지정구역을 백양사와 산내 암자까지 확대하고, 명칭을 '장성 백암산 백양사 일원'으로 변경·고시했다.

국가유산청 고시에 따라, 명승 지정 구역은 기존 31필지(약 58만㎡)에서, 백양사 본사와 산내 암자 10곳, 주변 생태지역을 모두 포함한 55필지(약 492만㎡)로 8.4배 가까이 늘어났다. 명칭 역시 백암산 일대의 종합적인 가치를 포괄하는 이름으로 바꿨다.

이번 조치는 백암산 일대가 지닌 뛰어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역사문화의 가치를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성 백양사는 고려시대 고승들이 머문 불교 도량이다. 이석, 정도전 등

당대 문인들의 시문이 전해지는 학문의 요람이기도 하다. 특히 새롭게 명승에 편입된 운문암과 청류암 등의 암자는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녹두장군' 전봉준이 일제를 피해 은신했던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세계질 질경을 뽐내는 백암산은 쌍계루와 어우러진 백학봉 암벽과 전국 제일의 단풍으로 유명하다. 천연기념물인 '고불매'와 '비자나무숲'이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을 포함해 15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 중이다.

김한중 군수는 "이번 명승 지정구역 확대는 장성 백암산과 백양사 일대가 지닌 가치를 국가가 다시 한번 인정한다는 뜻깊은 결과"라며 "파괴화됐던 명승들이 통합된 만큼, 더욱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h6699@



나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선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와 과학적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나주, 선제적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속도

과학적 예찰·권역별 방제...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나주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선단지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집중 방제와 과학적 예찰을 강화하며 선제적인 방제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병행하는 이중 방제와 외곽 발생 지역부터 중심 권역으로 단계적으로

방제를 추진하는 압축형 방제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 국가방제전략과 연계해 국가선단지인 노안과 문평 권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외부 유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지역 내 확산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나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피해목 8986본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 92ha를 완료했다.

또 산림연구원과 합동 예찰을 지속 실

시해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제거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예방나무주사 50ha와 감염목 제거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산림청과 공동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가선단지인 노안과 문평 권역을 중심으로 광역 협력 방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과 시민 대상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선충병 유입과 확산을 예방할 방침이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목포, 운전원·환경실무원 대상 안전교육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목포시는 최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청소차량 운전직 공무원과 환경실무원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강사가 참여해 실제 산업재해 사례와 청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청소차량 운전원을 대상으로는 암물박

스 교체 작업 중 끼임사고, 차량 승·하차 시 낙상사고, 후진 시 사각지대 사고, 도로변 작업 중 교통사고 등 주요 사고 사례와 예방수칙을 교육했다. 환경실무원 교육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 대응요령 등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영암 '해달맞이 체육교실' 호응 생활체육·에어로빅 프로그램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영암군 영암읍 달맞이공원에서 운영 중인 '2026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이 퇴근길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생활체육과 에어로빅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기존 삼호읍 대벌체육공원에서 운영하던 장소를 영암읍 달맞이공원으로 옮겨 처음 운영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 공원에서 저녁 시간을 활용해 가족과 친구, 이웃이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어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달맞이공원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참가자들은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한 참가자는 "혼자 운동할 때보다 꾸준히 참여하게 되고 운동도 즐겁다"며 "저녁마다 공원에서 이웃들과 함께 땀 흘리며 건강도 챙기고 활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영암읍 운영 호응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삼호읍에서도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을 추가 운영해 더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진도농기센터, 분석속련도평가 3년 연속 '만족'

국제적 공인 평가...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산하 식품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제 비교속련도 시험에 참여해 '만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시험은 전 세계 정부기관, 민간 분석기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분야의 분석 정확도를 평가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속련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평가 방식은 참여 기관에 동일한 시료를 제공한 후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값의 오차 범위인 기준 점수(Z-score)가 ±2.0 이내일 경우 '만

족' 판정을 받는다.

해당 기준 점수(Z-score)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분석 정확도가 우수함을 의미하는데,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0.1을 기록하는 등 높은 분석 신뢰도를 입증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도 기준 점수가 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 우수한 분석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대상 맞춤형 지도와 상담(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